

특별기고



김성균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출산율 반등의 불씨, 국가 차원 지원으로 살려야 한다

지난 2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 통계가 눈길을 끌었다. 9년 연속 하락하던 합계 출산율이 소폭이지만 반등한 것이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변화였지만, 이 숫자는 오랜 침묵 속에서 들려온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불씨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다.

단발성 반등은 의미 있지만, 그것이 이어지고 퍼져야만 진정한 전환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이중고 속에 놓

여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이미 인구 유실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 가운데 영광군은 주목할 만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6년 연속 전국 합계 출산율 1위,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결혼부터 출산, 육아, 청년 정착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결혼 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난임 부부 시술비 무제한 지원 등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취업 활동 수당, 창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전략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인 추진력이다. 이러한 지역의 노력은 분명 희망의 근거다.

하지만 지역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예산, 인프라, 제도적 권한은 결국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영광군처럼 인구정책에 선도적인 지자체들도 재정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 규제로 인해 자율적

정책 설계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율 반등이라는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도록 국가가 획기적으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확대하는 일이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확대 지급하거나, 지방소멸기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재구조화도 고려할 시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보장협의제도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 정책이 제한받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가 아니라 유

연한 협력과 지원의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다.

출산은 결국 삶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지역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가는 그 선택이 부담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의 조짐은 한 지역이 만들어낸 성과지만, 그 성과를 지켜내고 전국으로 퍼뜨리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다.

작은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흥문화예회관 ‘뮤지컬 정글라이프’ 연다

오는 24일… 정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직장인들의 오피스 라이프

장흥군은 직장인들의 삶과 회로에 락을 담은 뮤지컬 ‘정글라이프’가 오는 24일 저녁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한국 순수 창작뮤지컬인 정글라이프는 초연 이후 전문가와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유행과 관계없이 오래도록 공연될 뮤지컬로 인정받는 작품이다.

정글라이프는 먹지 않으면 먹히는 곳, 숨 막히는 현실의 막막함을 얘기하면서도 그 상황을 열정적으로 헤쳐가는 직장인들의 삶을 배우들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냄으로써

관객들에게 감동정화 시간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 선정 공연으로, 장흥군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 예매를 통해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된 5천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광양장도전수교육관

‘장도, 두드리다’ 운영

광양장도전수교육관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2025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토요일 ‘장도, 두드리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은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유산청 주관 공모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일환인 ‘장도, 두드리다’ 프로그램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장도장과 함께 전통 장도의 가치를 지역민과 나누고 체험을 통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어가 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통 장도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볼 수 있으며, 전통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나만의 장도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운영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광양읍에 있는 광양장도전수교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 진행된다.

회당 20명을 정원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양=조순의 기자

목포시립무용단, 오는 24일 정기공연

시민문화체육센터서 삼학학춤·살풀이춤·한량무 등 선보

목포시립무용단이 4월 24일 오후 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제45회 정기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춤을 넘어, 춤이 예술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로 꾸며진다. 명무 5인과 목포시립무용단원들이 펼치는 춤사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시립무용단의 전통기반 창작춤 ‘삼학학춤’으로 시작되며, 이어 ‘살풀이춤’ (서영남, 세종대학교 무용학박사·국가무형유산 살풀이춤 이수자), ‘한량무’ (박종필, 승무·살풀이춤 이수자·KBS 국악경연대회 대상) 등 한국적 춤사위가 펼쳐진다.

이여지는 무대로는 시립무용단의

‘규장농월’, ‘태평무’ (김선정, 단국대 예술조형대학 교수·2023 대한민국 무용대상 경연 부문 ‘수평선의 경계’ 대상), ‘허튼가락춤’ (안덕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와 교수·처용무·승무 전수자), ‘한영숙제 정재만류 승무’ (차수정, 숙명여대 무용과 학과장·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아리랑 오고무’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리랑과 북춤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희망찬 내일을 향한 의지를 표현하는 무대로 마무리된다.

공연 관람료는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이며, 온라인 티켓링크(예매 수수료 별도)에서 예매할 수 있다.

/목포=김재욱 기자

영광문예전당, 국립국악원 ‘경성유행가’ 공연

오는 18일…전통·서양 악기의 반주로 큰 울림 선사

영광군은 오는 18일 오후 7시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년 봄, 새로운 공연의 시작으로 영광군민을 대료시킬 국립국악원의 ‘경성유행가’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5 ‘국악을 국민속으로’ 지원사업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이야

기와 메시지로 일제강점기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당대 유행가를 만날 수 있다.

잔잔하면서 고졸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서도소리, 소리를 받쳐주는 가야금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 뛰어난 기량의 연주력이 돋보이는 가야금 병창, 당대 전설로 불리던 이화중선, 임방울, 박녹주, 김조항 등 판

소리계 스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악기와 서양 악기의 반주가 어우러져 큰 인기를 끌었던 신민요까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표현하며 영광군민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광군이 후원하며, 관람료는 1만원 (영광군민-3000원, 중·고등학생 이하-1000원),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하거나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영광=서종민 기자

|                                                   |                |                               |                   |
|---------------------------------------------------|----------------|-------------------------------|-------------------|
|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br>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                | <b>호남매일</b>                   | www.honamae.co.kr |
| 발행·편집인 고계방                                        |                | 주필 서길원                        | 편집국장 최춘의          |
| 대표전화 (062)363-8800                                |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                   |
| 사 장 실                                             | (062) 363-0027 | 편 집 국 장                       | (062) 363-8800    |
| 광 고 국                                             | (062) 363-0005 | 정 · 경 부                       | (062) 362-6116    |
| 편집국(FAX)                                          | (062) 362-0078 | 사 회 부                         | (062) 362-6226    |
| 서울취재본부                                            | (02) 783-8117  | 문 체 부                         | (062) 362-6116    |
| 인쇄처디엘코리아                                          | (031)466-1000  | 지 역 사 회 부                     | (062) 362-6226    |
| 구독료 연달 : 15,0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견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mailto: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mailto: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국 성...010-5602-1785  
구 제...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합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